

주가 빠지자 ‘물타기’ vs ‘예금행’… 개미들 엇갈린 행보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 -30%
신용융자 33조7057억까지 증가
고금리 이자 부담에 주가 하락 겹쳐
5대 은행 9월 정기예금 잔액 늘어

#.회사원 김모(48) 씨는 지난 7월 준순경 반도체와 중공업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 지수가 빠진 만큼 저점 매수의 기회라 생각해서였다. 그는 주가 상승을 확신하고 현금 2000만원에 신용융자 2000만원으로 주식들을 샀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신용융자 이자를 내며 버티던 그는 결국 이달 초 강제 청산(반대매매)을 당했다. 김 씨의 최종 수익률은 -37%였다.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 행보는 두 갈래다. 코스피가 하락하자 저가 매수와 물타기에 나서는 투자자와 시장에서 발을 빼는 개미들도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개인 투자자 코스피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ChatGPT로 생성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를 확대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평균 수익률은 -30.58%로 나타났다.

개미 투자자들은 반도체·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샀지만, 이들 종목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이 기간 수익률이 -59.17%였다. SK하이닉스(-52.20%)·삼성전기(-46.75%)·현대차(-40.30%)·삼성전자(-37.13%)·한화오션(-37.79%)·두산

(-33.49%) 등에서도 30~50%대 손실이 났다.

개인 투자자 중에선 주가 반등을 확신하고 ‘빚투’에 나선 경우도 많았다. 개인의 순매수 2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 기간 융자 잔고 수는 2184만 2921주에 달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는 금

리가 높은 신용융자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융자 거래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이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산 ‘개미’는 원금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개미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신용 거래에 뛰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개인들은 관심 종목이 급락한 뒤 저점을 형성하면서 회복할 경우, 주가가 바닥인 것으로 인식하고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융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도 ‘빚투’는 8월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추세다. 8월 7일 29조2304억원 수준이었던 신용융자 잔고는 14일 기준 33조7057억원까지 늘어났다. 사상 최고치인 38조6328억원(6월 24일)의 87% 수준까지 늘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반대매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는 점이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4일 7.2%(893억원)까지 증가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로부터 3거래일간 돈을 빌려 매매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안에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반대매매)한다.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증시를 등지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코스피 상승세가 꺾이면서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찾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06조87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8552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다 8월 말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증시 조정 여파에 CB·EB 권리행사 급감

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432건
BW 건수 줄었지만 금액 93.9% 증가

올해 3분기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가 직전 분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는 432건으로 전 분기보다 67.8% 감소했다. 행사금액은 4254억원으로 같은 기간 71.0% 줄었다.

주식관련사채는 발행 당시 정해진 가격과 기간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이나 발행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전환·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해당한다.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전환·교환 가격을 밑돌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권을 보유해 이자를 받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는 주가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예탁원을 통한 권리행사 건수는 지난해 4분기 1840건에서 올해 1분기 1823건, 2분

기 1343건으로 감소한 뒤 3분기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행사금액도 올해 1분기 1조 7719억원에서 2분기 1조4686억원, 3분기 4254억원으로 줄었다.

종류별로 보면 CB 권리행사는 254건,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건수는 54.4%, 금액은 66.5% 감소했다.

EB는 52건, 914억원으로 각각 72.8%, 87.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BW 권리행사는 126건으로 전 분기보다 78.8% 감소했다. 다만 행사금액은 1146억원으로 93.9% 증가해 건수와 금액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허정윤 기자



iM증권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iM증권

iM증권, 청년 152명에 금융 실무경험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iM증권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iM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커리어아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8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총 152명을 선발했으며, 참가자들은 본사 지원 및 영업 부서 현직자들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8주간 10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프로젝트는 직무별 현업 업무를 기반으

로 구성됐다.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실제 업무와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 참가자들의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성과가 우수한 참가자에게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iM증권은 청년층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8일부터 약 한 달간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투자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에게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위 입상자에게는 대구 지역 영업점을 통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김아영 기자 aykim@

한국투자증권, 日 JCR 신용등급 ‘A’로 상향

외화 장기 발행사·채권 등급 모두 상승

한국투자증권이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일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여 받았다. 일본 채권시장에서 쌓은 발행 실적과 맞물려 해외 자금조달 여건과 조달시장 다변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 회사사 한국투자증권은 일본 신용평가사 JCR이 외화 장기 발행사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상향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 신용등급도 ‘A-’에서 ‘A’로 올랐다. 등급전망은 등급상향에 따라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됐다.

JCR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견조한 수익성과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등급 상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기업금융(IB), 트레이딩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자산관리 부문의

수익 기여도가 높아진 가운데 IB와 트레이딩도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사업 부문 간 보완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적 성장세와 자본 효율성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한국투자증권의 순영업수익은 2025년 약 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JCR은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토대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건전성 지표도 규제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순자본비율(NCR)은 2929%로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은 644%로 규제 상한 1100%를 밑돌았고, 유동성비율은 122%로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JCR은 지속적인 이익 축적과 자본 확충을 통해 사업 확대와 시장 변동에 대응할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이 미국·홍콩에서 IB 사업을,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위탁매매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별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美나스닥100

순자산 10조 최단기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나스닥 100의 순자산총액이 10조1509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상장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국내에 상장한 미국 나스닥100 추종 ETF 가운데 최단기 기록이다.

미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100 지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아마존, 구글 등 전 세계 인공지능(AI)과 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 100개로 구성돼 있다.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3조2988억원에 달한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중 1위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적립식 자금이 10조원 돌파를 견인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KODEX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배경에는 ETF의 실질적인 운용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와 ‘정교한 지수 추종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 美배당 ETF 개인 순매수 1.3조

올해 개인 순매수 1조2827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ETF(458730)’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액이 지난 14일 기준 1조28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5종의 전체 개인 순매수액 가운데 79%에 해당한다.

순자산은 4조2833억원으로 동일 지수 추종 ETF 중 가장 컸다. 동종 ETF 내 순자산 점유율은 지난해 말 56%에서 62%로 6%포인트 확대됐다. /허정윤 기자

개인투자자 자금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유입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연속 매달 1000억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연금·적립식 수요와 배당을 통한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대표 배당 ETF인 ‘SCHD’와 동일한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추종한다. 2023년 6월 국내 증시에 상장했으며 분배금은 매월 지급한다. /허정윤 기자